

세계 최고 에너지 전문가들 나주로... 9월 국제 포럼

26~27일 에너지공대서 이틀간 RE100·탄소중립·분산에너지 주제 에너지 기업·투자 확대 기대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력 등과 손잡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국제 포럼'을 오는 9월 연다.

나주시는 지난달 출범한 국제에너지포럼추진위원회와 최근 회의를 열고 행사 준비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켄텍) 연구원장이 이끄는 국제에너지포럼추진위는 에너지 분야 교수·전문가와 기관장, 전남도·나주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유동희 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추진실장, 윤재호 켄텍 교수, 박효연 전남대 교수, 정순남·이순형 동

신대 교수, 김유신 전남에너지산업협회장, 김동욱 전남테크노파크센터장, 김강정 나주시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 국제 포럼'은 오는 9월26~27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에너지 공대에서 열린다.

행사의 공식 이름은 '나주에너지포럼2024'(약칭 NEF2024)로 잠정 결정했다.

포럼은 'RE100·탄소중립·분산에너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수소에너지, 핵융합(SMR) 등 3대 기술을 다룬다.

포럼추진위는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나설 세계적인 명사와 노벨상급 석학 인사 초빙 현황을 공유했다. 다른 행사와 차별화한 전시와 행사 운영, 홍보전략 방안 등을 구상했다.

'나주에너지포럼2024'는 '에너지 국제행사 개최'를 내건 민선 8기 윤병대 나주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나주시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포럼' 규모 학술행사를 열어 '글로벌 에너지 수도'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목표를 세웠다.

올해 나주시는 '직류산업 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탄소중립과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등을 다뤄 에너지 기업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주에너지포럼2024는 탄소중립, 그린 비즈니스 등 산업 틀 전환기에 대응해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나주가 가진 에너지산업 기반을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에너지포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의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이 만족하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오는 9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리는 '나주에너지포럼2024'(가칭)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행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집앞에서 잃어버린 막내딸 40년만에 극적 상봉

화순경찰, DNA 감식 확인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실종된 막내딸을 찾은 가족이 화순경찰서에서 극적으로 상봉했다.

화순경찰서(서장 박옥)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실종됐던 막내딸과 어머니가 만나 가족임을 확인했다.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잃어버린 막내딸을 찾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화순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 도움을 청했다.

1985년 11월 25일 오후 4시경 광주시 서구 화동동 옛 소년원 뒤편 집 앞에서 이웃집 아이와 놀다 사라진 뒤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들은 당시 근무자(류영건 경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상담을 하고, 해결을 위해 A씨와 첫째 딸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당시 막내딸도 어머니와 가족을 찾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두 번이나 유전자 채취를 했고, 최근 에아아동관리보장원으로부터 친자임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결과를 받은 여성청소년계 직원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자리를 마련했고, 지난 31일 감격스러운 상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막내 딸(가운데)을 찾게 된 가족이 화순경찰서를 찾아 가족임을 확인한 뒤 경찰의 축하를 받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경찰서 제공)

김진석 화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계장은 "40년 전에 잃어버린 막내딸을 어머니 품에 안겨드릴 수 있어 경찰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가족들이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신청사, 본청-의회 분리 신축

내년 3월 행정절차 마무리... 780억 투입 2027년 준공

장흥군 새 청사 건물 배치계획안이 확정되면서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장흥군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 청사 터를 포함 1만9200㎡(5800평) 규모로 본청과 의회 청사를 구분 신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사는 오는 2027년 말 준공 목표로, 이로써 신청사 배치를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청사 건립 위치(현 청사 터)를 확정하고, 이번에는 본청과 의회 건물 배치

계획(안)을 결정했다.

장흥군 본청 건립에는 총 78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장흥군은 내다봤다.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1만563㎡) 규모이며, 의회 건물은 장흥군산림조합 부지로 따로 배치한다. 의회 청사는 지상 3층(2670㎡) 규모로 지어진다.

의회 건물이 독립적으로 건립되면서, 군청사는 옥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이날 중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

인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에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행정 절차가 끝나면 내년 3월에 의회 청사가 들어서는 장흥군 산림조합부지를 포함한 3994㎡(1200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2026년 6월에 착공, 2027년 말에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장흥군은 신청사 건립에 맞춰 국도 23호선에서 군청사로 이어지는 폭 20m(4차선)의 진입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바다낚시 최강자 가린다 강진군, 8일 피싱 마스터스대회 시범경기

강진 마량항에서 '바다낚시' 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오는 8일 열린다.

강진군은 이날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샤크컴퍼니컵 빅게임 낚시대회' 시범 경기를 연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마량을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강진군의 바다낚시 어선 유치 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마량항은 지난해 6월 9t 이상 낚시어선을 유치한 뒤 이달까지 총 11척의 어선을 유치했다. 덕분에 한 달 평균 1000명 넘는 낚시객이 마량항을 찾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진 바다낚시 어선 누적 이용객은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마량항을 찾은 낚시객들은 마량지역 음식점,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17억2000만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

강진군은 마량항에서 올해 전국 단위 바다낚시 대회를 총 11회에 걸쳐 열기로 했다.

행사 기간 강진 마량항을 찾는 낚시객은 8000명



강진 마량항을 찾은 낚시객들이 바다낚시 어선에 올라타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이 넘을 것으로 강진군은 내다봤다. 올해 바다낚시 어선 누적 이용객은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방문객이 지역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에서 소비할 금액은 14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샤크컴퍼니컵 빅게임 낚시대회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100만원, 2~5위는 샤크컴퍼니 낚시용품이 지급된다.

대회 순위는 무개 계측으로 가장 많은 무게를 잡은 순서로 결정되며 2순위는 길이, 3순위는 참가 접수순이다.

대회에서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수산물 경품을 주고 상급 일부는 강진사랑상품권 준다. 행사장에서는 농수산물 판매 공간을 운영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마을지도로 지적재조사 한눈에

도면, 디지털 전환... 분쟁 해소

장성군이 지적재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지도'를 만들었다.

지적재조사 '마을지도'는 금산, 소룡1, 모현2 등 3개 사업지구의 화산·용동·안정·평동·화동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독사항을 바로잡고, 도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조사는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분쟁 해소,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이번에 설치된 마을지도에는 새로 확정된 토지 경계와 도로명주소 등이 적혀 있다. 주민들은 이를 보고 정확한 토지 소유 현황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도를 통해 필요한 정



장성군 삼서면 금산지구 주민들이 마을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보를 얻을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 학생 242명에 3억7천만원 장학금

함평군이 올해 상반기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으로 선발된 장학생 242명에게 장학금 3억 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함평군은 지난 31일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심의와 학자구 중복지원 심사를 거쳐 242명(고등학생 41명, 대학생 190명, 특기자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외에도 친환경을 통해 접수한 신청자 310명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 심사와 심의를 거쳐 대

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함평군은 전남 최초로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미래 인재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본연의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생태학습도시 조성' 2년 연속 선정... 교육전문가 2급 과정 진행

담양군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다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담양군은 17일부터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변화교육전문가 2급' 과정을 진행한다

고 밝혔다.

환경변화교육전문가란 기후·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탄소중립 중요성을 알리는 강사로 민간자격증 과정이다. 교육은 환경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이 외에도 친환경 문화 정착과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다양한 캠페

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지구를 부탁해!' 시즌2, 친환경 물품을 만들어 보는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평생학습정보방(https://www.damyang.go.kr/edu/index.damyang) 및 담양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깨끗하고 청정한 생태도시 담양의 환경을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두의 작은 실천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민 건치 장려 '불소용액' 무료 제공

보건소 연중 배포... 사용법·주의 사항 등 교육 후 제공

함평군이 군민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소양치 용액을 연중 무료로 배부한다.

불소 용액 양치는 치아 보호 및 충치 예방에 탁월하고 시린 이 증상을 완화하는 등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한 구강건강 관리 방법이다.

함평군 보건소 1층에 있는 구강보건실에 방문하면 불소양치용액을 불소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교육받은 후 바로 제공한다.

불소양치 용액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월 1회 무료 보충이 가능하다.

함평군은 관내 공·사기업과 산업단지에 불소 디스펜서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강 관리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불소 용액을 통한 치아 관리로 함평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